닛신보 미아이 공장 - 캐주얼 소재 가공이 급증

닛신보의 염색 가공 공장인 미아이(美合) 공장은 가장 자신이 있는 품종인 얇은 직물 외에 캐주얼 옷감 소재를 가공하는 노하우(know-how)의 범위를 크게 늘리고 있다.

직물 가공량 중에서 캐주얼 옷감 소재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2001년에 10% 정도이던 것이 2004년에는 30%를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

닛신보는 2003년부터 고객과 직접 대화하기 위하여, 영업 사원과 함께 공장 기술자도 고객을 방문하면서 고객이 구상하고 있는 기획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닛신보는 해외 생산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따라, 미아이 공장의 조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닛신보가 취급하는 생지량(生地量) 중 미아이 공장이 가공하는 양의 비율은 피크(peak)시에는 50%였는데, 해외에서의 가공품이 증가하여 지금은 40%로 떨어졌다. 한편 미아이 공장이 가공하는 생직물(生織物) 중 해외산의 비율은 30%로 커졌다.

미아이 공장은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 직물 가공 설비 능력을 원래의 절반으로 줄여 월간 550만m로 되었다. 기술 요원의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가공 능력은 400만m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생산 능력을 줄이고 나서 일본 내에서 조업하는 가공 공장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생존 방법을 찾고 있다. 생산 품종의 다양화나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강화하는 것도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아이 공장은 액체 암모니아 가공에서 가공기 4대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최대 규모이며, 표백 제품의 뛰어난 백도 관리 능력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가공 직물의 폭이 90인치의 초광폭(超廣幅)을 가공할 수 있는 점도 희소 가치가 있어 유리하다. 또한 직물 외에도 월간 100t의 편포 가공이 가능하고, 부직포도 월 100t 가공 능력이 있어, 그 만큼 다양성이 있다. 이들 특징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독특한 가공 능력을 유지ㆍ강화할 방침이다.♣